



당신이 정말로 몰랐던 동물들의 놀라운 진실

나무늘보·하이어나·타조... 그들은 패자가 아니라 진화를 이어가는 진짜 고수 추측의 동물학을 벗어나라



사체에 손을 대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탓에 오랫동안 혐오의 대상이었던 독수리는 사실은 사체를 청소하는 친환경 동물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오해의 동물원
루시 쿡 지음, 조은영 옮김

최근 대전의 어느 동물원에서 일어난 '퓨마 사살'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사육장을 청소하고 문을 잠그지 않아 퓨마 한 마리가 달아났던 모양이다. 대전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급기야 퓨마는 사살되기에 이른다.



의 놀라운 진실을 담아낸다. '네이처'지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윌트 디즈니까지 동물의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실수, 신화의 역사"라고 평한다.

저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나무늘보 같은 패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이다. 이 말에는 게으르고 멍청해서 경기에 진 실패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저자는 나무늘보야말로 정글에서 살아남은 고수라고 강조한다. 정글의 혹독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터득한 무기력한 천성이 비범한 내내력으로 발휘했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사람들은 좁은 프리즘으로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또한 오랫동안 동물을 선악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러나 책에 기술된 동물의 모습은 기존의 사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이어나나 봐도 그렇다. 애미메이션 '라이언 킹'에서 사자에게 먹이나 빼앗을 궁리나 하는 비겁한 겁쟁이로 그려진 하이어나는 사실은 똑똑한 두뇌를 지녔다. 전형적인 남근중심적 동물의 세계와 달리 암컷 위주의 무리생활을 하는데, 암컷이 누구와

언제 어디서 짝짓기를 할지 선택한다.

"모든 하이어나 씨족 집단은 알파(우두머리) 암컷이 지배하는 모계 사회다. 집단의 엄격한 권력 구조 속에서 지배권은 알파 암컷에서 그 새끼에게 승계된다. 이 서열 구조에서 수컷 성체의 계급은 동, 먹이, 교미를 구결하는 순종적인 낙오자로 추락한다."

저자는 일부일처제로 알려진 펭귄의 습성 또한 잘못된 상식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펭귄의 부부생활은 기독교주의 가족관을 상징하는 사회적 행동모델로 여겨졌다. 그러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매춘을 일삼는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동물이 펭귄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성적 습성이 사실은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환경

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초식동물인 타조의 진화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타조는 쇠를 소화할 수 없지만 날카로운 돌을 삼키곤 한다. 무슨 말일까? 초식동물인 타조는 풀과 나뭇잎도 너무 질겨 소화할 수가 없다. 이빨도, 되새김질하는 위도 없다. 그러나 저자는 "섭유

질이 풍부한 풀을 바닥에 놓고 부리로 찢은 후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 나서 뾰족한 돌을 삼켜 근육질의 모래주머니에 넣고 소화하기 위해 적당한 크기로 풀을 갈아버린다"고 부연한다.

그뿐 아니라 죽음의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독수리는 친환경 동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체를 뜯어먹는 모습에서 "새를 가운데 혐오스러운" 조류로 규정했다.

이같은 동물에 관한 가장 허황된 믿음은 중세 시대로부터 연유한다. 당시 싹 트기 시작한 자연과학을 중세 기독교가 장악하면서다. 물론 동물의 세계에 인간의 속성을 비추어보는 시도는 계몽시대에도 반복됐다. 명확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동물학의 상당 부분은 추측에 불과한 면이 많다.

저자는 "생명은 눈부시게 아름다울뿐더러 함없이 낮은 형태를 띤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생명체조차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이해할 수 있다"며 "진화는 논리도 없고 설명할 단서조차 없는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생물을 빚어냄으로써 훌륭한 장난을 친다"고 말했다. <곰출판·1만9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멜리 노통브 지음·이상해 옮김 '추남, 미녀'

20세기 말 프랑스 파리, 어느 못생긴 사내아이가 태어난다. 어찌나 못생겼는지 그 부모마저 절망에 빠질 정도다. 그러나 이 아이, 데오다는 커가면서 천재라는 사실이 점차 밝혀진다. 월등한 지적 능력에 질린 동급생들은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 같은 반 여자아이들은 이 독특한 괴물에 빠져 한차례씩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 그러나 데오다는 이 아이들이 오면 오고, 가면 간다고 생각할 뿐 마음을 주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프랑스 현대 문학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작가 아멜리 노통브의 신작 '추남, 미녀'가 출간됐다. 그녀의 소설은 허를 찌르는 유머와 기발한 상상력, 매끄러운 문장으로 오랫동안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46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1600만부 이상 판매됐다.

이번 소설은 사를 때로의 동화 '고수머리 리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추하지만 천재인 남자와 아름답지만 멍청해 보이는 여자가 주인공이다. 소설은, 남자 주인공 데오다가 출생한 시기에 눈에 띄게 예쁜 여자 아이의 출생을 서사에 등장시켜 흥미를 유발한다. 여자 아이의 이름은 트레미에르. 모든 아이들은 그녀가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멍청해 보인다는 이유로 괴롭힌다.

'추남, 미녀'의 두 주인공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권력의 두 축인 지식과 미모를 대변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박해를 받지만 점차 자신들의 장점을 이용해 지존감과 권력을 획득해 나간다. <열린책들·1만18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니알 키시타이니 지음·김진원 옮김 '경제학의 모험'

경제학이란 영역을 개혁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이면서 정치 사상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상당수 경제학자는 스스로 다리를 놓고 땀을 건설하는 기술자와 더 흡사하다고 여긴다. 기증기를 몰고 측정기를 재는 기술자처럼 경제학자도 자기만의 도구를 이용해, 즉 빈틈없는 이론 모델과 고급 수학을 활용해 특수한 문제를 푼다. 그렇다면 로스나 클렘퍼러 둘 다 기술자로서 출발을 내디딘 뒤에 경제학으로 갈아탄 다음, 경제 원리를 강력한 도구로 개조해 현실 세계 속 경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이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없지 않을까?



'경제학의 모험' 지은이 니알 키시타이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그 성과도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이 현대 경제학의 밖을 보아 사고의 지평을 넓히도록 권유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내부의 성과에도 주목해 기존의 경제학이 무능하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와 같은 거장으로부터 아서 루이스나 윌리엄 비크리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제학자까지 등장한다. 책 속에서 만난 경제학자는 각자 자기 시대가 앞둔 문제에 대처하며 서로 다른 이론을 제시했다. 경제학에서는 수학 문제 정답처럼 단 하나의 '참'인 대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 속 사상가가 서로 다르게 대응하며 접근한 덕분에 우리는 여러 영감을 받아 우리 나름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이 이론은 극심한 불평등이 금융 위기를 지구 온난화든 오늘날 당면한 경제 문제를 직시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키·2만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광식 지음 '천문학 콘서트'

천문학자 이광식의 교양천문학 스테디셀러 '천문학 콘서트'를 더욱 풍성해진 이야기와 120장의 사진으로 새롭게 만난다. 이 책은 과학이나 천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풀어간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색의 글로 출간 이후 천문학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개정증보판에서는 초판의 2부였던 '주제로 보는 천문학 산책'을 과감히 털어내고 1부 천문학의 역사를 더욱 상세하게 보강해 한층 더 풍부한 우주론의 역사를 담고자 했다. 120장이 넘는 사진 자료는 생생한 우주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책의 마지막에 더해진 우주 연표는 우주 탄생의 순간부터 종말까지 연대별로 구성돼 있어 천문학 역사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폭넓게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저자의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주론의 역사를 바탕으로 물리학의 공식,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 양자역학을 오가는 폭넓은 과학 이론은 물론, 근현대의 과학사까지 아우르며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주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던 시대에 탄생한 천동설부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흥미롭게 꾸렸다. 또 지구를 떠나고 있는 달, 지구 생명의 창조자이자 파괴자인 혜성,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우주론의 승부대결 등 책 속에는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별과 우주, 우주론의 흥미로운 역사와 신기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더숲·1만8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